

현대오일, 베트남 오지에 교육시설 기부

현대오일뱅크(대표 권오갑)가 해외 오지의 교육 인프라 개선에 나선다.

현대오일뱅크 1% 나눔재단은 2월14일 국제구호개발 단체인 굿네이버스와 협약을 하고 베트남에 유치원을 건설하기로 합의했다.



나눔재단은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북서쪽으로 170km 떨어진 쏘남 800평방미터의 부지를 확보하고 교실 6개, 화장실 2개를 갖춘 건물과 운동장도 조성하고, 10월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유치원이 완공되면 미취학 아동 180명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굿네이버스가 학교 건립 관련 실무를 맡고 재단이 건축비를 부담할 계획이다.

쏘남은 하루 생계비 1달러 미만 인구가 57%

에 달할 정도로 가난하고 산악에 고립돼 있어 베트남 최악의 교육 사각지대라고 나눔재단은 밝혔다.

1% 나눔재단은 세계 저개발 국가를 대상으로 학교 건립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창기 현대오일뱅크 1% 나눔재단 이사장은 “열악한 공공여건과 궁핍한 가정형편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세계 오지의 아이들을 위한 사업을 계속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화학저널 2013/02/14>